

대행 스님

팔만대장경이 옴치고 옴치고 돌아서 돌아서 마음 심 자 하납니다

마음 집중이 안 됩니다

질문 참선을 하다 보면 번뇌 망상이 일어나 마음 집중이 안 돼 괴롭습니다. 망상을 끊고 오로지 일념 정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우리가 망상을 끊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난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쳐 주신 뜻은 그게 아닙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쳐들었을 때에 손가락만 보지 마시고 손가락 하나의 참뜻이 그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건 손가락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망상은 바로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근원이고 거름입니다. 그런데 끊어야 한다고요? 끊기는 뭐를 끊습니까. 가서 물을 갖다가 베어 보십시오, 물이 끊어지나.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를 하는 것은 폭포수가 내리는데 틈을 주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샐 틈이 없는 그 도리를,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이 세상을 바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가 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은 아프면 아픈 대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죠? 어디서 이 아픔이 나온 것인가? 글을 읽을 때에 한 번도 백지 생각은 해 보시지 않으셨죠? 글자만 풀이하느라고 야단법석이지 그 글자가 쓰인 저 종이를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에 따라서 변천해 가는 이 진리를 타파하고 또는 이것을 우리는 자기 자신들이 알아야 하는 문제고, 우리가 큰 그릇이라면 큰 그릇으로 쓸 수 있지만 작은 그릇이라면 거기 작은 물건밖엔 못 들어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탁 터지고 모두가 둘이 아닐 때에 자유자재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고를 당합니까. 왜, 뭣 때문에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홍인 선사한테 바로 금강경 법설을 하시는데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림 · 최주현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빨리 이렇게 직결되는 문제죠. 어찌 알았으리까, 어찌 알았으리까, 어찌 알았으리까, 어찌 알았으리까. 저 '불(佛)' 자 하나가 말한 겁니다. 저 불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 핵입니다. 그 핵이 아니면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다면 자기 먹고 싶은 대로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에너지는 바로 여러분한테 지금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 그대로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신통이라는 이 자체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오븐이라면 그 속에 넣어서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보는 거 듣는 거 우리가 육근으로 인해서 육진 육식, 이것을 죄다 한데 합한 십팔심소연식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도 이거 요말 조말 따로따로 배울 게 없어요. 그 마음이니까.

결국은 팔만대장경이 옴치고 옴치고 돌고 돌아서 마음 심 자 하납니다. 저 불 자 하납니다. 그러니 망상 올라오는 것을 잘 지켜보면서 이 마음 하나를 잘 타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질문 믿었던 남편이 외도를 해서 이혼을 하고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는데 삶에 의욕이 생기질 않고 무기력감에서 빠져 괴롭습니다. 정말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 다닐 때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고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떼어 놓은 거 없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또 듣는 거라든가 보는 거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만나는 거라든가 일거수일투족 다 고정된 게 있던가요? 고정되게 보는 게 있던가요, 고정되게 듣는 게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닥치는 바람처럼 날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생활입니다.

그렇게 여여하게 살라고 해서 그 뜻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날까지 그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 편안하게 있지를 못하고 편안하게 놀지를 못해요. 꼭 놀아서만이 노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이 도리를 좀 더 알았으면 몸은 다사하나 마음은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바쁘다면 짜증도 날 것이요, 화도 날 것이요, 이럭하고 사람이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외로움도 생기는 법이고, 여러 가지가지가 말로는 다 표현을 못 하겠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몸도 병들고 마음까지도 병이 들죠, 의욕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사람 사는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 몸속에 생명체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몸속에 생명들이 천차만별로 들어 있는가. 우리가 인연 따라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두 인과성으로 인해서 만난 인연들입니다. 또는 정자 난자를 빌려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삼합이 하나로 돼서, 즉 말하자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거죠. 그런다면 그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졸병들이 있어야만 그 육체가 움죽거릴 테니깐요, 또. 그건 자동적인 인연이요, 자동적으로 자기가 짓는 인연입니다.

이것을 무시 못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은 고등 동물이라서 아주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처럼 정수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깐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깐 없고, 현재는 내 몸속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그 몸속에 주둔해 있는 것이 공했다는 것을 알고 바로 나오는 대로 거기다 입력을 되한다면 앞서의 팔자 운명이라고 울부짖고 앨쓰던 그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리를 잘 들으세요. 각자 여러분 속에 애당초부터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업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생각 하기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 행해 나가니까 이게 걸리고 걸리고 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다가오는 거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팔자 운명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할 것은요, 여러분 각자, 자가발전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